

HUFS

Cover Story

제1회 CFL
Ambassador Forum

Special Theme

대학의 미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HUFS

HUFS Topic

개교 67주년 기념식

HUFS Inside

HUFS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THE FIRST CFL AMBASSADOR FORUM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17만 외대 동문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이 만나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1 SUMMER Vol. 111

대학의 미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HUFS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제1회 CFL Ambassador Forum
- 04 **Special Theme** 대학의 미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HUFS
- 06 **Theme Interview** 대학 혁신의 길, 데이터에 답이 있다
두일철 SW중심대학사업단 교수·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 총괄책임자
- 12 **HUFS Interview** 청춘에게 보내는 선배의 묵직한 응원 -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반병렬 반씨대종회장/영어 55
요즘 세상의 번역자 - 한국외대 '동원번역상' 수상 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
해외 마케팅에의 대담한 도전 -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 최우수상 수상
알러뷰(AI-러뷰)팀 김채연·권서영·안지민 융합인재대학
- 18 **HUFS Inside** HUFS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제성훈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 송드보람 진로취업지원센터 과장
- 22 **Global Memoirs** HUFSan이기에 가능한 글로벌의 기회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화상 간담회 '한국청년리더 라운드테이블' 참가 후기 신재은 영어통번역학전공 17
- 24 **I am HUFS**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다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
- 26 **Global Issue** 한국의 친구,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정준영 미네르바교양대학 객원교수

HUFS NEWS

- 30 **HUFS Topics** 개교 67주년 기념식
한국-포르투갈 수교 60주년 문화주간
외국어교육센터 오윤희 과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유치에 기여
한국외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
- 34 **HUFS Today**
- 37 **HUFS Academies**
- 43 **HUFS Professors**
- 45 **CUFS News**
- 46 **HUFS Institutes**
- 48 **HUFS Books**

ALUMNI & DONATION

- 51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제1회 CFL Ambassador Forum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계기 및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지난 4월 30일(금) 오후 2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제1회 CFL Ambassador Forum'이 개최됐다. '제1회 CFL Ambassador Forum'은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오종진)이 특수외국어 사용 12개 국가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태국,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의 대사를 초청해 각국의 언어를 소개하고 한국 내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1세션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언어, 2세션 전략지역 언어로 구성됐다. 우리 대학과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국 내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의 계기 및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의 미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HUFS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미래가 데이터에 달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대학은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선정, 송도캠퍼스 데이터센터 조성,
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비롯한 첨단학과 신설(예정)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선도대학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선정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산업체가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을 선보이는데, 이는 언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언어학 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언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될 수 있게 좀더 미래지향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 특히 전문적 언어학 이론 수업은 외국어(영어/중국어)로 진행하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컴퓨터언어학을 교육하며, 학계 및 산업계와 연계해 단순 실습이 아닌 완성도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취업 연계가 가능한 점이 돋보인다.

송도캠퍼스 데이터센터 조성

우리 대학 송도캠퍼스는 현재 최첨단 콤플렉스와 글로벌 스탠다드 기숙사, 데이터교육연구 산학 콤플렉스가 들어서는 2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중 데이터교육연구 산학 콤플렉스는 28,050㎡(8,500평) 규모로 강의실과 산학협력실, 교육연구센터, 행정사무실 등이 자리할 예정으로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송도캠퍼스 데이터센터는 입주 기업의 인프라, 인력, 빅데이터를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인력 양성에 활용하고, 산학 협력 기금 조성을 통해 최적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 분야와 관련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IFEZ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위치하는 여러 IT(지식정보)·BT(바이오)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데이터사이언스학부, AI융합전공 등 첨단학과 신설(예정)

우리 대학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AI융합전공 등 첨단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금 조성 중인 송도캠퍼스에 5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으로 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신설하고, 현재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를 송도캠퍼스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이로써 데이터사이언스 및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융합인재학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주도형 모듈을 중심으로 융복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어통번역, 이랍어통번역, 중국어통번역 등 글로벌통번역 모듈을 기초로 국제전략, 문화산업콘텐츠, 글로벌경영과 마케팅, ICT & AI 모듈을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ICT & AI 모듈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다뤄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융합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외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데이터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선정되었다.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의 총괄책임자 두일철 교수에게 데이터와 우리 대학 혁신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 총괄책임자
두일철 SW중심대학사업단 교수

대학 혁신의 길,

데이터에 답이 있다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산업체가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이자 전제 조건은 빅데이터로, 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전문가는 산업 수요보다 많이 부족하며, 특히 신규 진입 인력의 역량이 산업

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빅데이터 전문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자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전액 국비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이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입니다.”

우리 대학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의 총괄책임자 두일철 교수의 말이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 11개 대학이며, 지원 대상은 데이터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생(3~4학년)과 석·박사 대학원생이다. 교육은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국데이터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료생 취업률은 매년 70% 이상이며 인문·사회분야 전공생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취업 클리닉, 대학별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국가 공인 SQLD, ADsP),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 봅니다.”

우리 대학 특성에 맞춘
자연어처리 기반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대학의 학제적 특성에 맞춰 이 사업의 방향을 ‘자연어처리 기반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자연어처리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야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인정돼 선정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교육과정과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대학이 바로 우리 한국외대입니다.”

이어 두일철 교수는 자연어처리 기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언어이해 기술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이해하고, 텍스트에 포함된 정보를 추출 및 분류하며, 더 나아가 직접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술을 포함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로 대표됩니다. 최근 자연어처리 기술은 인공지능과 연결된 딥러닝기술로 인해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며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딥러닝은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연결된 형태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모델인데,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과 풍부한 데이터, GPU 등 하드웨어 성능 향상과 맞물리면서 자연어처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는 것이죠. 대표적 사례로 자연어처리 기술은 검색, 맞춤법 검사, 챗봇, AI 스피커, 악성 댓글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AI 대표 기업인 구글은 ‘BER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고, MS, IBM 등은 챗봇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구글, 네이버 등은 악성 댓글 차단에 자연어처리 AI를 활용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은 AI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AI 스피커, 악성 댓글 차단(네이버, 카카오), 날씨 기사 작성(엔씨소프트) 등에 자연어처리 AI를 활용합니다.”

자연어처리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8%씩 증가하는 추세로, 다가오는 2025년 4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 역시 2025년 1260억 달러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어처리 시장이 현재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시장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일철 교수는 “우리 대학이 제시한 교육과정이 이런 전 세계적 시류와 시장 상황에 부응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선정된 것이라 여긴다”고 했다.

기업 멘토와 연계한
실무형 프로젝트로
취업 연계 가능한 점이 경쟁력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우리 대학의 경우 ‘인문학 없는 이공계 세상은 방향성을 잃는다’는 기본 전제 아래 ‘언어학, 공학을 만나 새로움을 창출하다’ 등의 교육 철학을 내세운다. 그 안에서 인문학 관점의 응용 언어학과 공학 관점의 자연어처리 기법을 융합한 커리큘럼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을 설계했다.

우리 대학의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은 언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언어학 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언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될 수 있게 좀더 미래지향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업 멘토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캐글(Kaggle) Competition을 이용한 팀 프로젝트 실습,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실습을 운영한다. 즉, 전문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중심의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간은 6월 28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며, 교육생 70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5일, 하루 7시간씩 총 350시간의 교육이 이뤄진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문적 언어학이론 수업의 경우 외국어(영어/중국어)로 진행하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컴퓨터언어학을 교육합니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 인력 Pool과 연계해 단순 실습이 아닌 완성도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멘토와 기획부터 수행까지 진행함으로써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한국외대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분야	교육 내용	시간
이론	응용 언어학 (영어, 중국어 진행)	• 인문학의 중심인 언어학의 관점에서 외국어라는 언어 자산을 학습하고, 컴퓨터언어학 이해에 초점을 맞춤	35
이론/실습	머신러닝/딥러닝	•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차원 축소, 모델 평가 등에 대해 학습 •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 학습, 표준 신경망 모델, 학습 기법, 영상·언어·음성 인식 문제의 기초 연구	49
이론/실습	자연어처리	• 자연어처리에 대한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에 이르는 언어 처리 과정을 학습	56
실습	캐글 실습	• 캐글에서 초보자 대상의 학습용 Competition을 이용하여 주제 선정과 프로젝트 진행 능력을 학습	35
실습	기초 프로젝트	• 팀 선정, 주제 선정, 요구사항 분석, 기초 설계	35
실습	심화 프로젝트	• 산업체 멘토와 연계한 산업체 관점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140
합계			350

“한국외대는 이번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데이터 청년캠퍼스’ 교육과정을 접목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자연어처리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과 학교, 산업체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따라 다양한 직업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의 전국 11개 대학 중 서울권역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등 6개 대학 정도다. 그중 올해 새롭게 진입한 대학은 우리 대학을 포함해 두 개 대학뿐이다. 우리 대학이 기존 몇 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던 경쟁한 대학과 경쟁해 신규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에 선정돼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운영대학보다 지원자가 적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고, 우리 대학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대학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자연어처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를 빼놓고 대학 혁신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두일철 교수에게 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물었다.

“우리 대학은 2019년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 양성’의 실무 중심 교육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를 송도캠퍼스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저장·처리·분석·지식추출·서비스 기능을 통한 데이터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일철 교수는 이 사업과 관련해 동문과 학생, 교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로 언어공학 기반의 자연어처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초연결 언어기술(Innovative Language Technology: ILT)을 갖춘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복합 전문가 양성입니다. 이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는 창직, 창업, 취업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으로, 특히 자연어처리에 관한 전문적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동문과 학생,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적합한 교육과정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할 것

우리 대학의 자연어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는 최근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수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일철 교수가 사업 책임자로 현재 수주한 사업인 AI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그중 하나다. AI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정제·가공, 검증 등은 물론 직접 고용과 함께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다국어 구어체 번역 말뭉치 데이터’, ‘방송 및 전문 분야 다국어 번역 말뭉치’ 분야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규모는 11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연어처리가 되는 과정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이런 방대한 언어 빅데이터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공 지능과 결합해 활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어 두일철 교수는 산학 협력 교육과정의 장점을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첨단 과학기술 보유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업 현장에는 우수한 신규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이런 인력을 배출해야 할 대학의 교육 내용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와 대학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H

U



HUFS
INTERVIEW

청춘에게 보내는 선배의 묵직한 응원
반병렬 반씨대중회장(영어 55)

요즘 세상의 번역자
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

해외 마케팅에의 대담한 도전
알러뷰(AI-러뷰)팀 김채연·권서영·안지민 융합인재대학



F

S

청춘에게 보내는 선배의 묵직한 응원

지난 5월 10일(월) 반병렬 반씨대중회장이 한국외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기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오래전부터 지역 내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선행을 실천해온 선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한다. 선배이자 어른인 반병렬 회장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반병렬 반씨대중회장(영여 55)



- 지난 5월 10일(월) 한국외대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모교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외대 재학생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청춘의 시절이죠. 학교 발전기금 기탁은 가장 좋은 시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한국외대 즉, 모교를 위한 마음입니다.
제가 충북 음성 출신인데, 제 선친이 그곳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역 내 학교에 장학법인을 만들어 장학금 제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국 청년회의소에서 서울 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선도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자연스럽게 이번 학교 발전기금 기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탁이 모교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서울상운차량공업(주) 대표이사로서 있을 때 선진 운수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운수업계의 선진화를 이끄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생각의 시야를 넓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상운차량공업(주)은 당시 운송회사였지만 단순히 운송 분야에 그친 게 아니라 정비 시스템까지 도입해 운수업계의 선진화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죠.
- 한때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큰 수술 뒤 위를 잘라내 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운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등과는 아주 멀어졌죠. 큰일을 겪은 뒤 마음을 다잡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며 지내기에 는 아직 인생의 날들이 남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품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주어진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거듭나기 꿈꾸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교 측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외대가 외국학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생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사회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과 제가 간극이 넓어 저의 조언이 학생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조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슴 한편에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 반씨대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반씨대중회 회장을 맡은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반씨대중회는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집안 역사와 실무를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와 예복의 간소화, 묘지 이장 등을 통해 좀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 나이가 올해 여든다섯입니다. ‘인생의 정리기’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인생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2년 내 이번 기탁처럼 몇 건의 기부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약속한 곳도 몇 곳 있습니다. 일단 90세까지 살고 싶다고 목표를 잡아두었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동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의 번역자

한국외대 '동원번역상' 수상
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

지난 4월 19일(월) 개최된 한국외대 개교 6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 최성은 교수가 '동원번역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동원번역상은 우리 대학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번역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학교의 위상을 드높은 공로로 수여한 상이다. 최성은 교수는 지금까지 「끝과 시작 – 쉼보르스카 시선집」, 「쿠오 바디스」, 「헤로도토스와의 여행」, 「태고의 시간들」, 「방랑자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등 30여권의 폴란드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김소월, 윤동주, 서정주 3인 시선집」, 「김영하 단편선」, 「마당을 나온 암탉」 등 10권의 우리 문학을 폴란드어로 옮겼다. 최성은 교수가 전하는 폴란드와 폴란드 문학작품, 번역 이야기가 흥미롭다.

● '동원번역상' 수상 소감을 들려주십시오.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뜻깊은 상을 주신 동원육영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폴란드어를 비롯한 특수외국어 분야의 문학 번역은 한국외대의 전문인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우리 학교만의 고유 가치이자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대가 배출한 다양한 언어권의 번역가들은 다채로운 삶의 방식과 예술적 성취가 살아 있는 세계 각국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소개하면서 세계 문학 지형도의 중대한 빈자리를 메꿔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껏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거나, 시장 논리에 밀려 도외시되어 왔던 특수외국어 분야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번역 작업을 해오고 계신 동문 번역가분들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동원번역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자가 매우 드문 특수외국어, 그중 폴란드 문학을 전공한 덕분에 멋진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운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원작이 가진 뛰어난 문학성과 예술성 덕분에 그동안 제가 번역한 책들이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영예로운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 폴란드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여 수난의 역사를 겪었던 폴란드와 한국의 역사적 유사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비슷해서인지, 한국인과 폴란드인은 기질적으로 서로 닮은 점이 참 많거든요. 제가 폴란드에서 유학할 때 폴란드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면 친구 어머니가 “유학생이니까 잘 못 챙겨 먹겠구나” 하고 걱정하시면서 집에 돌아갈 때 음식을 잔뜩 싸 주시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의 푸근한 어머니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한국 못지않게 맘 편히 오갈 수 있는 안식처, '제2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학자 혹은 번역가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폴란드 문학작품을 번역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외국 문학을 번역하는 이유 또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자국 문학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표현의 지평을 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게 번역의 보람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안겨준 책은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2007)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쉼보르스카는 '시인들의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많은 문인들로부터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의 번역으로 쉼보르스카의 시를 읽은 국내 시인들이 한국어로 옮겨진 쉼보르스카의 시에서 어법이나 리듬 구조를 빌려오기도 하고,

우리말 안에서 '쉼보르스카 풍(스타일)'이 하나의 경향으로 구현되어 그것이 우리 문인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번역자로서 놀랍고 또 뿌듯합니다.

●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언어의 한계는 당신의 세계의 한계다(The limit of your language is the limit of your world).” 저는 그의 명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갖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자와 어휘와 문장을 넘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그리고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권의 누군가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크고 다양한 세계를 얻게 되는 일이라고요. 한국외대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내 세계의 지평이 넓어지고, 모국어의 세계를 넘어 또 하나의 세계를 소유하게 되는 벽찬 체험을 누리기 바랍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십시오.
과분한 상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번역에 정진해야겠죠? 일단 올해는 과학과 문학,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SF의 거장 스타니스와프 렘의 장편소설 「솔라리스」의 출간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에세이와 단편 소설집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독자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거기에 번역의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에 저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폴란드어'에서 출발하여 '모국어'로 향하는, 그리고 때로는 '모국어'에서 출발하여 '폴란드어'로 향하는 여정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에의 대담한 도전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는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우수 대학생 콘텐츠 인력 대상 실무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모두 11개 팀이 참여해 3개월간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알러뷰(AI-러뷰)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알러뷰(AI-러뷰)팀 김채연·권서영·안지민 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 최우수상 수상
알러뷰(AI-러뷰)팀 김채연·권서영·안지민 융합인재대학

●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시청자의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목표로 회의마다 많은 고민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탄생한 아이디어가 현실성 있고 짜임새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게 기획·제작하는 과정마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신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에 지원하기 전, 다들 망설이다가 활동 기회를 놓칠 뻔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팀으로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해준 노다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과 칭찬을 해주시고 수상 소식에 함께 기뻐해준 융합인재대학 최진영·김수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번 대회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해외 마케팅 영상 콘텐츠 세 개를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손소독제 '제로퍼센트' 홍보 영상입니다. 제품이 지닌 디자인, 편리함, 커스터마이징, 환경 보호, 세정력이라는 다섯 가지 특징을 제품의 색상과 연결해 각각 5개의 숏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편마다 소구점을 하나씩 강조한 짧은 스토리인데, 해외 마케팅인 만큼 적은 대사만으로 웃음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다락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소개 영상입니다. 다락원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준비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한국어 학습을 할 때 헛갈릴 수 있는 한국어 문법을 깨우치면서 한국어 마스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콘텐츠는 '건조로 살균을 답하다'라는 주제의 큐온 칫솔살균기 제품 홍보 영상입니다. 박자감 있는 빠른 전개 속에서 멀티 살균기의 분리형 구조, 다용도성, 히터 건조 방식이라는 여러 소구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품 중심으로 제작했습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지민 첫 영상을 촬영할 때 서툴렀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첫 촬영이었고, 욕심이 났던 탓에 계속 재촬영을 하다 보니 영상 5개 중 마지막 영상은 촬영하지 못한 채 스튜디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스토리보드상 실내 촬영을 해야 했지만 대본을 수정해 야외 촬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채연 영상 콘텐츠 제작의 주제인 제품 선정을 할 때 저희 팀이 마지막 순서로 제품을 고르게 되어 예상치 못한 한국어 교재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고민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권서영 이번 대회는 융합인재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 학부생으로서 참여한 첫 번째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융합인재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외국어뿐만 아니라 해외 마케팅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담당했는데, 기존 아랍어통번역과 학생으로서 외국어를 처음 접할 때 힘든 점과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예상 소비자의 니즈를 추측하고 파악했습니다. 단일 언어 전공을 넘어 융합 전공 학부생이 돼 언어와 마케팅, 언어와 영상 같은 전공과 전공의 결합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융합 전공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들려주세요.

김채연 아랍어통번역/중동이슬람전락 모듈을 살려 중동 지역에서 할랄 무역을 하고 싶습니다. 할랄은 아랍어로 '(신으로부터)하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무슬림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할랄 시장은 중동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외 마케팅과 무역을 깊이 있게 공부해 할랄 시장 무역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권서영 해외 마케터가 되고자 합니다. 그냥 마케터가 아닌 해외 마케터로 활동하려면 언어 능력이 요구되니 저의 원래 전공인 아랍어를 포함해 영어 학습 역시 성실히 할 것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무역영어>를 공부하며 무역실무 이론을 배울 계획입니다.

안지민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외 활동에 참가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하면서 많은 영상을 기획·제작했는데, 내가 의도한 부분에서 시청자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실무 경험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이 길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HUFS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외대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학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성훈 서울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과 송드보람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과장에게
이 사업의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대
학,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연간 6억원(대형 기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대학은 2015년 10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시범대학으로 선
정돼 올 2월 말까지 5년 넘게 이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3월에 2021학년도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은 재학생과 지역 청년뿐 아니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졸업생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키는 잡매칭 매니저 운영,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체계적
상담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심각
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 서비스를 유지·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부의 취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
보해 구직자들이 취업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진로 취업 상담의 범위를 확장해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필요시 관련 전문 기관에 연계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송드보람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과장의 말이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후속 사업에 선정

우리 대학이 기존 사업에 이어 후속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
유는 무엇일까. 제성훈 서울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양 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와 진로 취업 전
담 교수님, 협력 부서의 공이 크다고 했다.

제성훈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송드보람 진로취업지원센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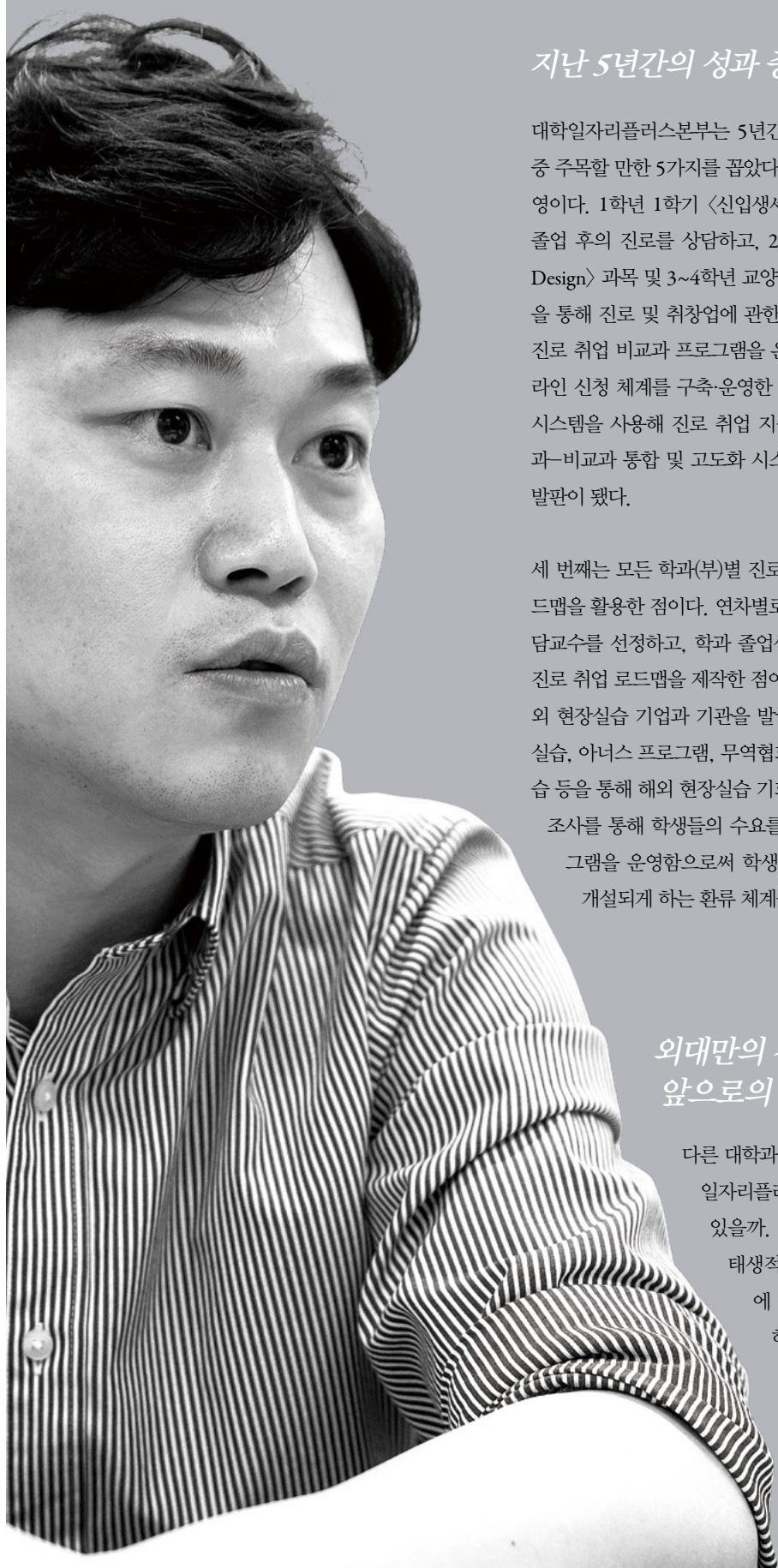
“학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 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관리를 착실하게 한 결과입니다. 최호성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님, 이기현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장님,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장님, 홍순혁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님, 김현숙 글
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님과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과별로 1~2명씩 있는 진로 취업 전담 교수님들
이 학생들의 진로 취업을 독려하는 등 열심히 협조해준 덕분입
니다. 진로취업지원센터와의 협업 과정에서 잘 도와준 학내 다
른 부서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사업의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데는 5년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교내 진로 취업
교과목을 통해 저학년부터 진로 설정이나 취업 준비에 대한 관
심을 환기시키고, 우수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꾸준히 지속한 것이다. 진로취업지원교수제를 통해
학과별로 특화된 진로 설정 체계를 구축한 점과 학과별 진로 취
업 로드맵을 제작해 진로 방향에 관해 과거, 현재, 미래를 접할
수 있게 한 것도 평가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 기회를 늘리려 양질의 현장실습을 유
치해 운영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나 아너스 프로
그램, 코트라, 재외공관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
장실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외대
의 특성에 걸맞는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을 운영한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기
존에는 진로 취업 상담을 하는 진로
취업 컨설턴트를 전문업체에 위탁
해 운영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학교 직고용 체제로 변경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설계와 경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생들이 진로취업지원센터의 문을 일찍 두드려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찾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기 권합니다.”

“우리 대학은 인문학 비중이 커서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힘을 쏟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란 기초와 맞물려 인문계와 이공계의 벽을 넘나드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 중 주목할 만한 5가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5년간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성과 중 주목할 만한 5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진로 취업 교과목 운영이다. 1학년 1학기 〈신입생세미나〉 과목을 통해 전임교수와 졸업 후의 진로를 상담하고, 2학년 교양 필수 〈HUFS Career Design〉 과목 및 3~4학년 교양 선택 〈HUFS Path Finder〉 과목을 통해 진로 및 취창업에 관한 체계적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진로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이다. 최근 5년간 HUFS GPS 시스템을 사용해 진로 취업 지원 허브 역할을 했는데, 이는 교과-비교과 통합 및 고도화 시스템인 HUFSAbility로 진화하는 발판이 됐다.

세 번째는 모든 학과(부)별 진로취업지원교수제와 진로 취업 로드맵을 활용한 점이다. 연차별로 학과를 정해 진로 취업 지원 전담교수를 선정하고, 학과 졸업생의 사회 진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취업 로드맵을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네 번째는 우수한 해외 현장실습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다. 코트라 현장실습, 아너스 프로그램, 무역협회 현장실습, 대학 글로벌 현장실습 등을 통해 해외 현장실습 기회를 열었다. 마지막은 정기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되게 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외대만의 강점 살린 앞으로의 수행 계획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우리 대학만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의 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송드보람 과장은 “우리 대학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강점이 이 사업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 대학의 강점은 해외 취업이나 해외 지향 직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교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나 EU연구소 등과 협력해 세계 여러 지역의 구체적 기업 정보와 취업 역량에 관한 특강을 함으로써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현장실습 진출에 장애가 생겼으나, 상황이 나아지면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진로취업지원센터의 훌륭한 인력 또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정을 다해 임하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소속 직원들 말이다. 이런 강점을 살려 앞으로 6가지 측면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까지 포함해 취업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각종 생활과 학업, 진로 등에 대한 기초 상담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진로취업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 장학팀 등 여러 부서의 연계 상담이 이뤄진다. 잡매칭 프로그램 강화도 눈길을 끈다. 잡매니저를 채용해 기업 DB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에 이룰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체계를 안정화하고 보완·발전시켜 취업 지원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진로 취업 지원에 대한 접점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청년의 취업 지원 확대 방안도 있다.

“이밖에 청년 취업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고용 정책을 홍보하고, 협업을 통한 지역 사회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 홍보 공간인 대학일자리플러스라운지를 설치해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자리 정책에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전문 진로 취업 상담시 이런 정책이 우리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홍보하려 합니다.”

시대에 걸맞는 취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취업 경쟁력 강화가 궁극적 목표다.

“우리 대학은 인문학 비중이 커서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힘을 쏟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기초와 맞물려 인문계와 이공계의

벽을 넘나드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면접 등 취업 스킬과 관련한 교육이나 각종 직무 교육을 학생 수요에 맞게 유지하면서 세부 방향을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대폭 전환하고,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송드보람 과장의 말이다. 제성훈 본부장 역시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설계와 경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을 잘 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진로취업지원센터의 문을 일찍 두드려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찾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기 편합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이끌어 가는 포부를 물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크게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취업 준비에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최대한 이용하게 유도하고,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송드보람 과장의 말에 이어 제성훈 본부장은 동문과 학부모, 기업인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우리 학생들을 해외 현장실습이나 국내 역량 있는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Global HUFS」를 보는 동문과 학부모님, 사회 각계각층의 기업인들이 우리 외대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HUFSan이기에 가능한 글로벌의 기회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이 지난 3월 18일(목)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진행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한국청년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청년 지도자들의 화상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한미일 삼자 관계, 대북 정책, 기후 변화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온라인 비대면 대화에는 우리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신재인, 김한얼, 인진만, 박주혁 학생, TESOL 영어학 전공 민선아 학생, LD학부 김수영, 박소영 학생이 참가했다. 그중 영어통번역학부 신재인 학생이 참가 후기를 들려주었다.



신재인 영어통번역학전공 17



흔치 않은 기회, 망설였지만 참여하기로 결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라운드테이블에 우리 대학도 참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할지 말지 망설였다. 하자니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다. 참여 인원을 정확히 몰라 소수로 진행되는 줄 알았기에 더 그랬다. (함께 참석한 동기와 우스갯소리로 ‘막상 들어가 보면 한 백 명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니 흔치 않은 기회를 제 손으로 날리는 것 같았다. ‘안 해보고 아쉬워하느니 해보고 반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결국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질문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깨닫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할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역시나, 막상 질문을 준비하려니 막막했다. 무작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국제 정세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느끼게 되었다. 한미 관계와 한미일 관계, 대중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기사와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다른 질문자들 보며 긍정적인 자극 받아

드디어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화상 간담회 ‘한국청년리더 라운드테이블’ 날이 밝았다. 라운드테이블은 50분 남짓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래 진행된 않았지만, 다른 질문자들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 정치, 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었기에 사안을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걸 보며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들은 시간

코로나19 시대, 수업은 물론 소개팅까지 비대면으로 한하지만 줌(Zoom)으로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운드테이블 참여 이후, 지금도 틀어둔 뉴스에서 또는 기사 제목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는 이름이 들리거나 보이면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게 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 매우 의미 있었다. 이 글을 읽는 학우 여러분에게 ‘뭐든 해볼 기회가 생기면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듣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다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4월 13일(화)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으로 선발된 멘토 학생은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티 연수생에게 실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 한국 문화, 대학교 생활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된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원 4명의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

김기민 아랍어과 16 / 유성지 중국외교통상전공 20 /

이동엽 Language & Diplomacy학부 15 / 전수한 Language & Diplomacy학부 15

한국 알리고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 주려 참여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은 올 1학기부터 시작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국어문화교육원의 외국인 학생과 우리 대학 재학생의 만남을 통해 멘토 학부생에게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외국인 멘티 학생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평소 다양한 교류 환경을 접하려 노력하던 김기민 학생은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원 모집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한국을 알릴 뿐만 아니라 더 열린 시야와 생각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저는 각 주차별 주제 선정을 위해 많은 시간 고민했고, 멘티와 상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만의 고유 문화와 한국 방송 콘텐츠 등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 멘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성지 학생은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에 관한 공지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 이후 멘토링 활동 개요를 보고 중국어 특기를 살릴 수 있으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멘토링 활동을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맡은 멘티는 올 9월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중국인 학생입니다. 수강 신청, 수업, 발표, 과제, 동아리, 시험 등 한국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동아리를 예로 들면 ‘동아리는 대학 생활 중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업, 자기 계발, 취미 등 목적에 따라 수많은 동아리가 있고, 유학생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활발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식으로 말해주고 멘티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라 자부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웃음). 그때 경험을 떠올려보면 주변에 의사소통할 상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받았던 것 같이 외국 학생들과 에너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에 참여했다는 전수한 학생의 말이다. 전수한 학생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한국의 실제 문화를 알려주려 노력했다. 멘티는 ‘정말 한국 남자는 군대에서 2년을 보내야 하나’, ‘왜 한국인들은 이사를 자주 하나’, ‘식사 후 카페를 가는 것은 왜 관행처럼 되었나’ 등 자신의 나라와 차이 나는 문화에 대해 많이 물어봤고, 그때마다 세세하게 문화의 배경까지 전달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의 조교이기도 한 이동엽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생과 교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외대 재학생 3명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저의 멘티 황슬민 학생은 우리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외대 학부생으로서 제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생의 대학 입시, 학부 수업, 우리 대학의 이중전공 시스템,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배경까지 세세히 전달하려 노력

각자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마지막으로 4명의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해 물었다.

“저는 멘토링의 연장선으로 제 멘티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서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꿈은 없지만, 중국어 특기와 현재 배우는 중국외교통상과 국제통상 전공을 살려 해외 영업과 무역 관련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유성지 학생의 말이다. 학생 기자로 활동하는 전수한 학생은 “외국인 멘티 인터뷰 기사를 쓰고 싶다”면서 “언젠가 기자가 된다면 외국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사람을 대신하는 ‘스피커’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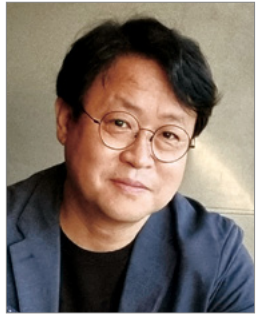
김기민 학생은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더 넓은 환경에 나아가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과 요령을 설명해줬습니다. 그 이후 멘티가 제게 그 방법으로 검색하니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고, 나중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멘티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실질적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멘티로부터 ‘멘토링을 가졌던 10주가 매우 행복했고, 멘토가 착하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서 보람찼다’는 편지를 받은 순간이 특별했다는 김기민 학생, 기본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1:1 매칭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멘티가 친구와 함께 멘토링을 받고 싶다며 같은 반 친구를 데려와 보람 있었다는 전수한 학생까지, 이들에게 이번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 활동은 인생의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어 멘토링 봉사, 대학 생활의 아주 특별한 순간

한국의 친구,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장준영
미네르바교양대학 객원교수

군부를 제어할 집단과 제도가 부재한 미얀마

한국과 미얀마는 닮은 점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정(情)’은 미얀마에서 ‘땅요진(thanyawzin)’으로 불리며 사람 간 유대를 강화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켜온 이유로 강인한 협동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집단적 결속은 음식을 나누고 한 소절 노래에 신명을 찾는 여흥 문화에서도 발견된다. 정의감에 사로잡힌 행동은 간혹 성질이 급하거나 다혈질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본성은 어디에서나 미소로 화답한다.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한국어와 뜻이 같은 미얀마어 어휘도 적지 않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넘쳐나고, 국내 미얀마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력은 최상급이다. 유무형의 한류 상품이 미얀마에서 각광받는 이유도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염원일 것이다.

심지어 두 나라의 군부 통치 역사도 비슷하다. 미얀마에서는 한국보다 1년 늦게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으나 이후 두 나라는 판이한 경로를 걸었다. 한국은 소위 발전국가 또는 개발독재로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수인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이유를 부각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해 마침내 1987년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과 소수민족의 무관심 속에 1988년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

미얀마에서 군부를 제어할 집단과 제도가 부재하고, 사회적 균열이 심각한 상황은 여전하다.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관료 사회가 파업하는 소위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전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군부와 대적할 수 없었다. 이제 맹렬했던 거리의 시위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현지 소식을 보도하던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으며, 미얀마 시민과 연대하겠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이대로 군부가 정권을 가져간다면 900명에 가까운 시민의 희생은 헛되이 되고, 군부의 총칼 앞에 또다시 쓰러린 패배의 기억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래를 체념하게 할 수도 있다.

미얀마 상황에 부합하는 연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사실 이번 미얀마 사태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국제사회는 단연 한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의 미얀마’가 ‘어제의 광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한국처럼 압축 성장 경험이 없고, 국가 구성원 간 서로 갈등하는 분열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지려는 집단이 행사하는 폭력은 언제나 잔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집단은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폭도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미얀마 사태는 광주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정의롭지 못한 국가 폭력의 단상이다. 미얀마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감성적 시각은 미얀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실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원한다면 미얀마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대와 지원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한국외대는 미얀마와 적지 않은 인연을 쌓아왔다. 2013년 국내 대학 최초로 미얀마 최고 대학인 양곤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고, 양교의 우애를 다지는 차원에서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고, 그 기부증(판)은 불탑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교내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미얀마에서 특강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양국 교류와 우호 구축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2014년부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미얀마어 강의를 교양과정에 개설하고 있어 학생들은 서툴지만 미얀마와 친구가 되어 왔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대자보에 실린 목직한 메시지와 29개 외국어로 작성한 민주화를 지지하는 교수 성명서도 한국외대이기에 가능했다.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민초의 분기충전을 기대하다

민아웅홀라잉 군사령관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저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직 군부가 국가 전역을 장악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국민의 저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비폭력주의를 버린 일부 시민은 시민방위군(PDF)을 결성했고 이제 군부와 무력 대결이 임박해 보인다. 지난 6월 19일, 아웅산수찌 전 국가 고문의 76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은 머리에 빨간 꽃을 꽂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시위도 끊이지 않는다.

군부는 국민이 자포자기하여 군부에 순응하는 일상으로 복귀를 희망할 것이고, 국민은 다시 한번 역량을 결집하여 반격을 꿈꾼다. 여건은 녹록해 보이지 않지만 8월 8일을 포함하여 역사적 기념일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민초의 분기충전을 기대한다.

미얀마는 신흥국가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워질 준비를 마쳤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 우리와 공유하는 정서와 매사에 성실한 자세, 그리고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그야말로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이다. 우리 정부도 베트남을 잇는 유력한 싼남방국가로서 미얀마를 주목하고, 다양한 공적 원조를 포함한 양자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얀마도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강대국 대신 한국과 각별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므로 군부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구축한 양자 관계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 없으니 그들의 찬란했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흥겨운 노랫가락과 춤사위에 우리도 같이 덩실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역사적 장면에 우리 한국외대가 증인이 되었으면 한다.



H

U



HUF S NEWS

- HUF S Topics
- HUF S Today
- HUF S Academies
- HUF S Professors
- CUFS News
- HUF S Institutes
- HUF S Books



F

S

개교 67주년 기념식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19일(월)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교 6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됐다. 박선주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 행사는 이태욱 기획조정처장의 학교 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김종철 이사장과 김인철 총장의 기념사, 민동석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종철 이사장은 “한국외대의 핵심 역량은 외국어이다. 다양한 외국어 분야 중 특히 번역 분야에서의 우수한 업적을 통해 우리 대학의 학문 발전과 위상 확립에 큰 역할을 해주신 두 분에게 법인에서 새로 마련한 동원번역상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인철 총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주도한 17만 동문을 배출한 명문사학, 이공계 중심 선두권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인문학 전통을 가진 융복합 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엄중한 소명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뉘겠다”고 전했다. 민동석 총동문회장은 “코로나19와 함께 다가온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동문회에서 도입한 '동문 멘토링'의 선순환 사례처럼 학교와 재단, 총동문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대학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기로 다짐하는 개교 67주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포르투갈 수교 60주년 문화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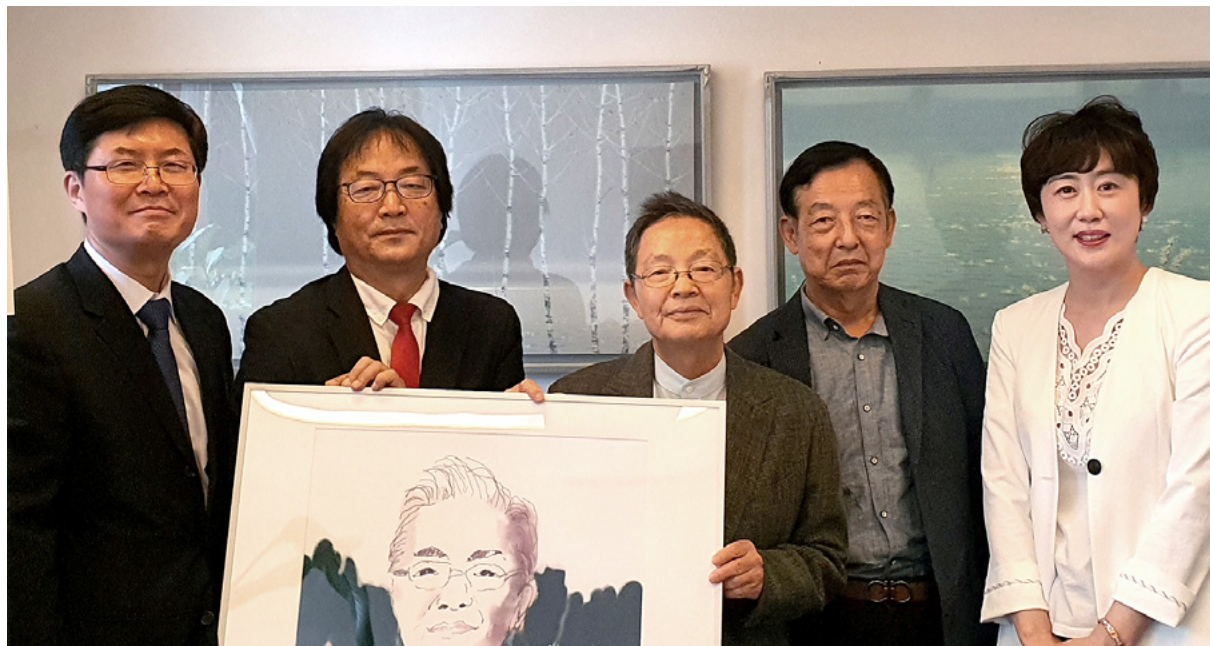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한국-포르투갈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1일(금)부터 EU연구소와 주한 카몽이스 포르투갈어센터 주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문화 행사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포르투갈 문화주간을 시작했다. 5월 21일(금) 열린 문화주간에는 1일차 '포르투갈 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포르투갈과 한국이 만나는 문화행사가 시작됐다. 주한 카몽이스 센터가 준비한 포르투갈 '디지털 사진전'과 EU연구소가 주 포르투갈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준비한 '포르투갈에서의 한국 공공 외교활동 사진전'이 오프라인으로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스마트도서관, 이문107 등에서 5월 말까지 진행됐고, 온라인에서는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사진전 개막식에는 Manuel Gonçalves de Jesus 주한 포르투갈 대사, 김봉철 EU연구소장, Maria João Amaral 카몽이스 포르투갈어센터장,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학과장, 정재민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르투갈을 표현하는 포르투 와인과 현대 포르투갈 건축, 한국을 스쳐간 포르투갈 축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22일(토) EU연구소와 카몽이스 센터 주최의 국제 학술대회, 5월 28일(금)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외국어교육센터 오윤희 과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유치에 기여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오윤희 과장이 장학금 확충 및 학교 발전기금 1억원 유치에 크게 기여해 주목받았다. 오윤희 과장은 지난해까지 학생지원팀에서 교외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해 우리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 및 우리 학생들의 장점을 꾸준히 알렸다. 그 결과 정수장학회, 아산사회복지재단, 홍산장학재단, 문숙장학재단, 다우기술 등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신규 장학금을 확충했다. 또한 장학금 발굴 중 남정장학재단 박훈택 이사장이 우리 대학 동문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를 권유해 학교 발전기금 1억원 유치에도 기여했다. 오윤희 과장은 “기금 모금은 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원 대외협력처장은 “오윤희 과장의 발전기금 유치 사례는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한 결과로 많은 구성원들의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경옥 대외협력처 부처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박훈택 남정장학재단 이사장, 문정수 남정장학재단 이사, 오윤희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과장



한국외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한중, 이하 로스쿨)은 지난 4월 22일(목),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발표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5위(로스쿨 10기 입학 인원 기준)에 올랐다. 한국외대 로스쿨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10기 입학생 51명 중 3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 60.78%를 기록하며, 전국 5위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77%로 1위를 차지했고 영남대(69%), 고려대(68%), 성균관대(61%), 한국외대(60.78%) 순이었다. 회차별 합격률로는 지난해 합격률(48.7%)과 비교하여 무려 12.8%p의 큰 상승곡선을 그리며, 전년 대비 합격률 상승폭 전국 1위에 올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총 3,156명이 응시하여 1,706명이 합격하였으며, 전체 합격률은 54.1%다. 법조계와 학계, 수험가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산정할 때 단순 응시인원이 아닌 해당년도 입학인원 기준 합격률이 가장 의미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이 졸업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을 제한하여 시험 합격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 과정 3년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은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한국외대 로스쿨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어과,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는 지난 3월 5일(금) 2021학년도 1학기 이탈리아어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전성철 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성민(17학번), 나윤주(18학번), 김가빈(19학번), 이태현(20학번) 학생과 '이탈리아어과 창립 50주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영빈(15학번), 공성빈(18학번) 학생이 학과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탈리아어과 박관수 동문회장과 전성철 동문, 김시홍 교수 등 이탈리아어과 교수진이 참석했다.



직원 직무 수행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식

지난 3월 9일(화)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우수한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3명의 직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2020년 하반기 우리 대학 직원들의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표창 추천이 있었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정보공시, 진로탐색활동 협력 등 3개 업무 분야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김인철 총장이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객선주 행정지원처장, 윤일 인사혁신팀장이 함께했다.



'HUFS JOB STUDIO(AI 면접실)' 구축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채용으로의 취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취업 지원 멀티 플랫폼 공간인 'HUFS JOB STUDIO(AI 면접실)'을 구축했다. 지난 3월 11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202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인철 총장은 "채용 변화에 맞추어 구축한 HUFS JOB STUDIO(AI 면접실)가 우리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축된 'HUFS JOB STUDIO(AI 면접실)'은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됐으며, 방음 시설을 갖춘 4개실로 구성돼 있고 학생들의 온라인 비대면 면접과 AI 면접, AI 역량 검사 등 비대면 채용 대비 연습에 활용할 예정이다.



GTEP(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 사업단, 제15기 발대식

우리 대학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GTEP)' 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 사업단')이 제15기 GTEP 사업단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 대학 GTEP 사업단 제15기 요원들은 올해 1월 1일(금)부터 한국무역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교육을 각 50시간씩 이수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아카데미 전문가인 안현기 교수, 김정환 강사, 유재결 교수 등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해서 제15기 학생들은 11월에 개최되는 전국 GTEP 대상 전자상거래 경진대회도 준비 중이다.



프랑코포니 대표 3개국(프랑스, 르완다, 세르비아) 대사, '프랑코포니에 관한 교차시선들' 특강

지난 3월 19일(금) 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Yasmine D. Amri Sued 주한 르완다 대사, Aleksandar Dordevic 주한 세르비아 대리대사가 우리 대학에 방문해 '프랑코포니에 관한 교차시선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OIF(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를 대표해 우리 대학을 방문한 이들은 이 기구의 역사와 조직,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에 참여한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및 프랑스어학부 소속 30여 명의 학생들은 특강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열린 토론의 장을 펼쳤다.

한국외대, 교수 188명 30개 언어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 발표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31일(수) 교수협의회(회장 전종섭)를 중심으로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30개 언어로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성명에는 김인철 총장을 포함해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뜻을 함께한 교수 188명(내국인 교수 148명, 외국인 교수 40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는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국어 원문을 우리 대학 교수진이 미얀마어 포함 29개 외국어로 번역했으며, 터키어, 우즈베크어 등 11개 특수어의 경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공공 분야 재능기부 형태로 번역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학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대형)으로 선정돼 지난 3월 19일(금)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1년차 사업비 6억원과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제성훈 학생인재개발처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지난 5년간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서는 취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전문적인 학생 상담 연계 체계 운영, 기업 DB 및 잡 매칭 프로그램 강화, 대외기관 협력 및 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인재개발원 개원식 및 현판제막식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16일(금)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에서 공공인재개발원 개원식과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공공인재개발원은 이전 진로취업지원센터의 행정 지원을 통해 운영된 고시반을 공공 분야 인재 양성의 의지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조직이다. 공공인재개발원의 산하에는 Pre-Law School, 행정고시 연구실, 국립고원시험 연구실, CPA시험 연구실, 언론고시 연구실, 임용고시 연구실이 있다. 김인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 고시반의 발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열람실 이전 등 고간의 변화를 강조하며, 앞으로 공공인재개발원 학생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MOU 체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오종진)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받아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업무 협약(3월 30일(화) 고양국제고등학교, 4월 12일(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을 체결했다.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교육과정 '자기성장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프로젝트와 세계 시민 프로젝트를 기획해 운영하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란어(페르시아어), 터키어, 포르투갈어의 특수외국어 기초 어학 교육을 지원한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상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외국어를 통한 세계의 언어와 문화' 특강을 진행한다.



총동문화, '청능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총동문화(회장 민동식)는 지난 5월 3일(월) 서울캠퍼스 총동문화 사무실에서 '청능(靑儂)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 앞서 강 전 총리 가족(강성룡, 혜연, 효영)은 올해 강 전 총리 서거 5주년을 맞아 부모의 뜻을 기려 지난 4월 20일(화) 장학금 1억원을 총동문화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동문화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해 두 명(남녀 각 1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첫 장학생으로는 유종권(중국어통번역 15), 유승연(국제통상 18) 학생이 선발됐다.



IT학부, 금융감독원 주최 '금융소비자보호법'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IT(Language&Trade)학부 이주현·최윤서(이상 19학번) 학생이 지난 5월 4일(화)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모두 242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이중 7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 IT학부 이주현·최윤서 학생은 '금감이와 친구들'을 구성해 '금감이와 함께 배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UCC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제작한 '금감이와 함께 배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UCC는 영상을 통해 대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평가받았다.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단 독립출판 프로젝트, 대학 학보사 관찰기 '라이터, 출판'

지난 5월 7일(금) 우리 대학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단이 추진하는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언론을 다룬 책 '라이터'가 출판됐다. 「라이터」는 대학 학보사에 대한 관찰기를 담은 도서로 이준성, 이수빈(이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9) 두 학생이 공동 집필했다. '외대학보'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성균관대학교 '성대신문',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등 6개 대학 학보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신간 「라이터」는 현재 이문일공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후 판매처를 확대될 예정이다.



스승의 날 행사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월 13일(목) 백년관 총장실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카네이션 증정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가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행사로 김인철 총장, 신정환 부총장 및 행사에 참석한 처장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감사의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사제간의 돈독한 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운유 총학생회장(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15)은 “때론 학생 복지와 권리, 각종 현안을 두고 학교 본부와 치열하게 논쟁하고 부딪히지만, 평소에는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번역대학원-데이터센터-통번역센터, 양해각서 체결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원장 한원덕), 데이터센터(센터장 윤성우), 통번역센터(센터장 황지연)는 지난 5월 21일(금) 데이터 구축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 및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세 기관은 데이터 구축 및 확보공유를 도모하며, 데이터 관련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및 사업 진행을 함께 기획하는 방향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통번역대학원 한원덕 원장, 데이터센터 윤성우 센터장, 통번역센터 황지연 센터장을 비롯해 한승희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총장과의 대화’ 진행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20일(목) 백년관 총장실에서 온라인 대담 방식으로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는 코로나19로 김인철 총장, 최호성 학생·인재개발처장, 김운유 총학생회장, 윤정현 부총학생회장 등 4명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학생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았고, 언어 계열 유사학과 통폐합, 송도캠퍼스 개발 계획, 2학기 수업 방식 및 평가 방법, 학점 백분위 산출법 변경 등을 주요 질문으로 선정했다. 김인철 총장은 주요 정책들의 비전과 효과, 각종 예산과 데이터 등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총학생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철 총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이 이강우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인철 총장은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외대 구성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철 총장은 다음 주자로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노어과, 2021학년도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노어과는 지난 5월 18일(화) 2021학년도 ‘노어과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노어과 후배사랑 장학금’은 신동익 동문(88학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제정된 장학금으로, 홍주희(19학번) 학생이 2021학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홍주희 학생은 “노어과 학생회의 꿈을 이어가는 ‘후배사랑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며 노어과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자신문사, ‘2021 The Argus Prize’ 시상식

우리 대학 영자신문사 The Argus(디아거스)가 주최한 ‘The Argus Prize: English Essay Contest 2021’ 시상식이 지난 5월 28일(금)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열렸다. 1980년에 시작된 ‘The Argus Prize’는 올해로 31회를 맞은 권위 있는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다. 올해 The Argus Prize에는 50여 명의 학생이 응모한 가운데 심사 결과 EICC학과 안정현(18학번) 학생의 ‘What Creates Justice: Punishment or Change?’가 1등의 영예를 안았고, 2등은 국제학부 유승빈(20학번) 학생의 ‘One Size Does Not Fit All’, 3등은 경제학부 홍승재(16학번) 학생의 ‘Fairness, an Idealistic Illusion: What’s the Alternative?’가 선정됐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 사업단, 경기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 3월 26일(금)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의 환영사 및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축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2개의 패널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6명의 발표자와 12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디지털타임스 공동 주최 ‘한반도-북방 문화 전략 포럼’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 4월 8일(목)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반도-북방 문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개최된 포럼은 개막식, 1부 문화 라운드테이블, 2부 통상 라운드테이블, 축하 공연, 폐막식 순서로 진행됐다. HK+ 국가전략 사업단과 종합 경제일간지 디지털타임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와 북방: 문명과 문화의 함께 걷기’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미네르바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 4월 24일(토)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미네르바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의 환영사 및 박혜경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장의 축사, 윤석상 미네르바정치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3개의 패널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9명의 발표자와 9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2021 플레랑스 유라시아 영화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 지역인문학센터 플레랑스는 지난 4월 29일(목)~5월 9일(일) ‘2021 유라시아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HK+ 국가전략 사업단 플레랑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11일간 펼쳐졌으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영화들을 기획 상영하였다. 영화제 상영 작품들은 50~60년대 당시 소련 사회의 분위기를 영화적 기법으로 해석하거나,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의 일상적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한국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기회가 됐다.



극지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2차 러시아 북극연구 후속세대 양성 워크숍’ 우리 대학 극지연구센터(소장 최우익)는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5(일)~26일(월)과 5월 9(일)~10일(월) 각각 양일간 인천광역시 송도와 부산에서 ‘제1~2차 러시아 북극연구 후속세대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북극 전문가의 강연과 참여 학생의 연구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했다. 기후 변화와 북극의 변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적·실무적 지식을 전달하고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러시아연구소

산업자원통상부 양자산업협력사업 신북방정책포럼 수행기관 선정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공정한 2021년 양자산업협력사업(제2021-104호, 137호) 중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신북방정책포럼은 2021년 3~12월까지 10개월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경제권 주요국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수집과 협력 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 신북방경제권 주



요국의 경제·통상·산업·에너지 등 협력 환경 변화와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연구소는 신북방경제권과 상시적 소통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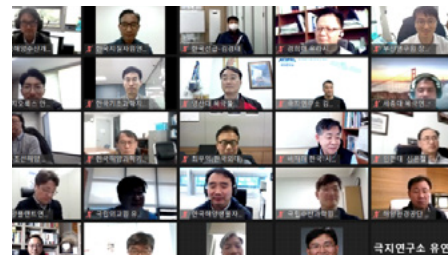
제1회 신북방정책포럼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지난 4월 23일(금) 제1회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연구소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양자산업협력사업 중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개최된 첫 포럼이다. 제1회 포럼은 러시아의 미래산업 분야 중 중 무인 자동차, 드론, 자율운행선박 같은 모빌리티 산업, 러시아의 제4차 산업혁명 중 모빌리티 분야와 NTI 2035(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가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지난 4월 29일(목) 화상 회의로 개최된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운영위원회에 참가했다.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에서는 최우익 교수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KoARC 강성호 운영위원장(극지연구소 소장) 및 참여 기관 대표들, 3개 분과 위원, 사무국 등 29개 회원 기관에 속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KoARC 주요 활동 및 성과와 '2021년 극지 이슈 리포트' 발간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됐다.



2020년 주요 활동 성과로는 '극지 이슈 리포트' 발간, 융복합 기획연구 지원 및 정부 R&D 사업화 추진을 꼽을 수 있다.

인도연구소

HK+ 사업단, 제2회 한-인 2030 포럼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 사업단(단장 김찬완)은 지난 3월 31일(수) 제2회 한-인 2030 포럼(The 2nd Korea-India 2030 Forum)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인 2030세대 문화와 가치관의 대전환'으로 2개 세션으로 나눠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30대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인 2030포럼은 한국과 인도의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변화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와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HK+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수요 인문학 강좌-네 번째 강의'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는 '수요 인문학 강좌' 네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도쿄외국어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신재은 박사가 '여신 카마키야: 부족종교의 힌두화과정'이라는 주제로 동부 인도에 위치한 아쌈주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 강의했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가 진행하는 '수요 인문학 강좌'는 인도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인도의 인문학 자산을 접할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6월 2일(수)까지 진행됐다.

HK+ 사업단,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 사업단은 지난 5월 10일(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해영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신비주의와 종교, 종교의 만남과 영원 철학, 라마크리슈나와 영원 철학, 세속적 신비주의와 종교의 미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해영 교수는 신비주의의 종교학적 개념과 서구 신비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개설하고, 이것이 종교에서 가지는 의의와 영원 철학의 개념을 설명했다.



HK+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 사업단은 지난 5월 26일(수) '인도의 대전환: 도전과 현실(Great Transition in India: Challenges and Realities)'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총 7개국 13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인도 정치, 외교 및 경제 분야의 대전환 요소들을 파악하고, 변동의 폭과 향후 방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공유·토론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주최한 인도연구소는 인도·남아시아 지역 연구 분야의 국제적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할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수행해가고 있다.



장모네 EU센터

EU연구소와 총계 연합 학술대회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함께 지난 4월 23일(금) 부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한국유럽학회, 제주평화연구원,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및 EURAXESS Korea와 공동으로 '유럽연합과 한반도: 상생적 번영과 평화적 공존의 모색'을 주제로 총계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즈음해 한반도 문제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다각도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콜로кви엄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지난 5월 6일(목) 대학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를 초청해 'EU조약의 법적 지위와 성격 및 기후 변화 정책'을 주제로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박덕영 교수는 유럽연합의 기구 및 발전 과정과 EU법의 특수성에 대해 발표했고,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같이 유럽연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했다. 발표 이후 조희문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유럽연합 형법과 EU법이 동아시아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봉철 교수(국제학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우선 협력 연구소 초청 세미나 및 중남미학 HK연구소 협의회 출범식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3월 12일(금)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남미 연구소 HK+ 사업단 우선 협력 연구소 초청 세미나 및 중남미학 HK연구소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중남미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세미나 이후 열린 협약식에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중남미학 HK연구소 협의회를 발족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K+ 사업단,

논문 공모전 및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3월 22일(월)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논문 공모전 및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업단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2회 논문 공모전에는 중남미의 생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개발 포기의 배경을 다룬 논문이 수상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대중 교육을 목적으로 열린 유튜브 영상 콘



텐츠 공모전은 멕시코 교환학생의 현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한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다.

HK+ 사업단, '저자와의 대화-박태현 교수 편'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4월 26일(월)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 제1세미나실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를 초청해 비대면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지구」를 위한 법학-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 중심주의로, (서울대학교출판원, 2020)의 공동 저자인 박태현 교수는 '에라도르 원주민의 세계관이 자연권과 지구를 위한 법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HK+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 '빠차마마 TV' 콘텐츠 수어 통역 제공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 지역인문학센터(빠차마마)는 자체 유튜브 채널 '빠차마마 TV'를 통해 제작·보급하는 콘텐츠를 수어 통역과 함께 제공한다. 대상 콘텐츠는 심화 트랙의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으로 깊게 들여다보기'와 대중 트랙의 '현장에서 바라본 생생 라틴아메리카'로, 현재까지 두 프로그램의 13개 영상에 한국어 자막 외에 수어 통역 영상이 삽입돼 있다. 앞으로 추가 제작될 영상에 대해서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빠차마마 TV'의 모든 영상은 한국어 자막과 함께 콘텐츠의 성격과 시청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자막 또는 수어 통역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HK+ 사업단, 한·중남미협회

‘한-중남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식’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5월 14일(금) 한중남미협회 사무실에서 한·중남미협회(회장 신승철)와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중남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식’에서 두 기관은 향후 전문 인력 및 중남미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의 교류, 지역 전문가 양성과 시민교육 강좌의 공동 주관, 국내외 네트워크의 공동 구축, 중남미 생태 및 자연권 사상의 확산에 합의했다. 지난 25년간 한·중남미협회는 민간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 경제, 문화 및 학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왔다.



HK+ 사업단, 월요초청세미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5월 24일(월)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은중 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월요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은중 교수는 ‘근대문명의 이행: 발전에서 일리의 세계들(pluriverse)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은중 교수는 오늘날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깊은 성찰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업단에게 ‘산업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사업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자리였다.



EU연구소

연구소 리모델링 및 개소식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 3월 30일(화) 연구소 리모델링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 윤석만 부총장, 김시홍 이탈리아어과 교수, 조성은 교무처장(서울), 제성호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박선주 행정지원처장(서울), 이유나 국제교류처장, 오종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박정운 ELLT학과 교수, 최종찬 인도어과 교수,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교수, 강유덕 IT학부 교수, 박경은 태국어과 교수, EU연구소 홍재웅 선임연구원 등 연구소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향후 EU연구소는 새로운 공간에서 각 연구원에게 더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교수진과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아이디어랩(Green Idea Lab)과 MOU 체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 5월 6일(목) (유)그린아이디어랩(대표 장병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린아이디어랩은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선제적 정책을 제안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환경 분야 학술 교류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데 뜻을 모으고, EU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EU의 환경정책과 한국정책으로의 도입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 합의했으며, 앞으로 다수의 사업과 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몽이스 포르투갈어센터와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EU연구소는 지난 5월 22일(토) 카몽이스 포르투갈어센터와 한국과 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 포르투갈, 폴란드, 터키,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해 국제사회의 유럽과 포르투갈, 한국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로 마련된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포르투갈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화두,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정책과 포르투갈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포르투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APTIF9) 논문집 발간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원장 한원덕) 개원 40주년 기념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APTIF9)에서 한독과 안인경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A&HCI) 〈Babel-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의 Special issue(66:4/5/2020)로 발간됐다. 객중철 명예교수(한영과)와 안인경 교수(한독과)는 BABEL의 편집장 Frans De Laet 교수와 함께 해당 호의 편집을 맡았다. 안인경 교수는 해당 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의 역사 소개와 통번역대학원을 통해 시작된 한국 현대 통번역의 역사와 현재를 조영했다.



전자공학과

한국전자파학회 주관

제6회 전자파측정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 박영철 교수 연구실(MARS LAB)의 감미향(석사과정), 임시연(석사과정), 윤홍선(박사과정) 학생이 지난 3월 19일(금) aT센터(양재)에서 열린 제13회 전자파측정기술워크숍에서 한국전자파학회 주관하는 제6회 전자파측정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 연구팀은 이번 논문을 통해 전자소자의 모델링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교하게 확장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최지윤 박사,

한국광고학회 주관 2020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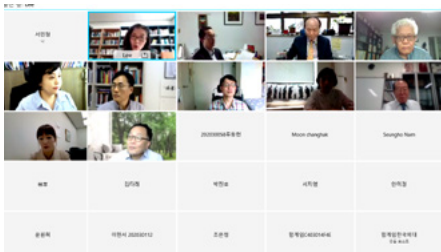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최지윤 박사가 지난 4월 2일(금) 한국광고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2020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지윤 박사는 이번 논문에서 TV 광고 요급 구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이슈인 시급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기준 요금이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지상파 3사의 광고 요급, 시청률 자료를 활용해 TV 광고 요급 구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했다.



언어연구소

2021년 상반기 언어연구소 온라인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김중호)는 지난 5월 14일(금) 2021년 상반기 언어연구소 정기 학술대회를 온라인(Webex)으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는 ‘뇌과학과 언어처리’를 주제로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뇌 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조장희 석좌 교수, 충남대학교 이공주 교수의 자연 언어 처리에 관한 기조 강연에 이어 2개 분과, 4개 일반 발표가 진행됐으며, 동시 접속자 최대 100여명, 평균 40명 이상의 접속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일본연구소

‘제5회 우수논문상 시상식’

우리 대학 일본연구소(소장 서재관)는 지난 4월 22일(목)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일본연구소에서 ‘제5회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논문상은 손범기 박사(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日本語の二重母音について-二重母音に関する音声的な判断基準(일본어의 이중모음에 대하여-이중모음을 규정하는 음성적 기준)〉 논문으로 수상했다. 우수논문상은 일본과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신진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본연구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신진학자를 발굴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영어통번역학부

진로취업지원센터 공동

영화 ‘기생충’ 번역가 달시 파켓 특강

우리 대학 영어통번역학부(학부장 윤선경)는 진로취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5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달시 파켓(Darcy Parquet) 영상 번역가 특강을 온라인(Zoom)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한국 영화와 자막 번역’이라는 주제에 대해 영어통번역학부 윤선경 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달시 파켓은 영화 자막 번역이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었다.



융합인재대학

‘2021 Ingenium-K Project 미래를 만드는 특강 시리즈’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은 지난 5월 10일(월)~6월 14일(월) 융합인재학부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 5월 10일(월)에는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월 13일(목)에는 마랑고니 스쿨의 Leonardo Marra, Michael Michaelides, Sennait Ghebreab이 ‘마랑고니 스쿨’ 소개 및 ‘패션 산업의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5월 18일(화)에는 김병관 전 웹젠 대표이사이자 전 국회의원, 6월 14일(월)에는 이주연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와 이정한 의료통역 전문가가 강연했다.

2021 Ingenium-K Project			
미래를 만드는 특강 시리즈			
시간	주제	강사	ZOOM Link
5월 10일(월) 오후 6시	한류에서 신한류로 문화창작의 도전과 흥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ID: 791 475 9454 PW: 0318
	‘마랑고니 스쿨’	Leonardo Marra 마랑고니 디자인대학원 학내처	

한국무역협회 주최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 아랍어통번역·중동이슬람전략 세부 모듈 안지민, 권서영, 김채연 학생의 '알러뷰(AI-러뷰)' 팀이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1기 대학생 해외마케팅 콘텐츠 크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팀별 월 1회, 총 3회에 걸쳐 제작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 마케팅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상은 융합인재대학 3학년 안지민, 권서영, 김채연의 '알러뷰(AI-러뷰)' 팀에게 돌아갔다. 알러뷰팀은 3개월간 손소독제, 한국어 교재, 칫솔 살균기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 국제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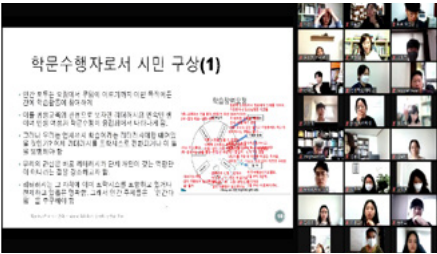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단장 오종진)은 지난 5월 21일(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페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30년: 비전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고, 후속세대 세션이 별도로 예정돼 차세대 연구자들의 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정치외교학과

인하대 글로벌다문화 교육연구단과 MOU 체결 및 공동 학술대회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BK21 글로벌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연구팀(팀장 이재목)은 지난 5월 14일(금)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 교육연구단(단장 김영순)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रो에 선 민주주의와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BK21 글로벌다문화 교육연구단은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다문화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단이다.



철학문화연구소

EU연구소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지난 5월 28일(금) 우리 대학 철학문화연구소(소장 권영우)는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 특강은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최동민 교수가 '독일의 인종혐오와 학살'이라는 주제로 제1차 세계대전의 사회심리학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하는 시기 유럽 사회에 드러난 인종 혐오와 학살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럽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동남아연구소

콜로퀴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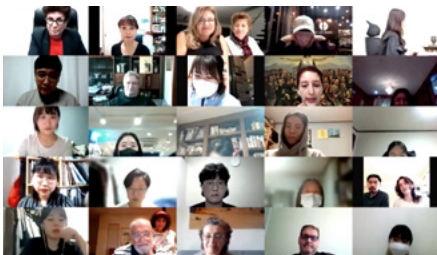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박연관)는 지난 5월 25일(화) 한동만 전 주 필리핀 대사를 초청해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퀴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됐다. 이번 콜로퀴엄에서 한동만 전 대사는 '아세안 현상에서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공공외교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발표 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공공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그리스 독립 200주년 기념 행사

그리스는 1821년 3월 21일에 독립을 선언한 이후 올해로 200주년을 맞았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스만제국의 통치에도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독립을 이루어낸 그리스인의 자유를 향한 저항운동은 유럽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우리 대학 그리스·불가리아학과는 '그리스 독립 200주년 기념 행사'를 4월 15일(목)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 그리스 대사과 국내외 관련 인사 및 학과 구성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교영 통번역대학원 교수, 한려교류협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방교영 교수가 지난 3월 17일(수) 사단법인 한려교류협회(이사장 기연수) 회장으로 선임됐다. 방교영 교수는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노과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원에서 러시아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번역대학원 17대 원장을 역임했고, 2013~2019년까지 한려 정상회담 대표 통역을 맡았다. 방교영 교수는 앞으로 4년간 한려교류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나제스다 통번역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김나제스다 교수가 지난 3월 18일(목)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1'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1'은 개막식에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내 의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나제스다 교수는 한국 의료기



관 해외 진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전문 의료 통역사 양성을 통한 의료 산업 발전 및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용련 사범대학 교수, 한국대학R협의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사범대학 교직부 김용련 교수가 한국대학R협의회(Korean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KAIR)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용련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자문위원, 국가교육회 전문위원,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대학R협회는 대학 평가나 효율성 증대, data-based management,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고등교육 정책 연구 학회다. 김용련 교수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한국대학R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성승은 융합인재학부 교수, 한국통역번역학회 학회장 취임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성승은 교수는 교수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성승은 교수는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영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통역번역학회는 지난 1998년 설립된 국내 통번역학계 최초의 학회로, 통역 및 번역 연구자와 실무자간 교류의 장으로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학술상 시상 등을 주관한다. 성승은 교수는 앞으로 2년간 한국통번역학회 학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대식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제22회 의암대상 학술 부문 수상

우리 대학 미네르바교양대학 윤대식 교수가 지난 4월 12일(월) 제22회 의암대상 시상식에서 학술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년째 의암을 연구하고 있는 윤대식 교수는 근현대 한국학 총서 정치리더 연구로 평전을 펴낸 공로를 인정받아 의암대상을 수상했다. 의암대상은 류인석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상으로, 매년 학술공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윤대식 교수는 "꼬박 5년에 걸쳐 류인석 선생 평전 작업에 매진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다. 정치 지성으로서 위정척사파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의암 선생의 정신과 활동 영역이 넓고 깊은 만큼 더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유네스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아태지역 포럼에 연사로 참가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가 지난 4월 30일(금) 유네스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아태지역 포럼에 연사로 참가했다. 유네스코는 5월 3일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로 지정하고, 매년 대표 회의를 회원국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는 빈트후크 선언 30주년을 맞아 나미비아에서 본 회의를 열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고려해 나미비아에서의 오프라인 행사 규모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번 포럼에 참가한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보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연사로 참여했다.



HUFS Professors

교수 출간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의 균형」 출간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저술한 「법의 균형-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가 출간됐다. 최승필 교수는 저서를 통해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사회 질서의 제도적 기반인 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자리잡고 있는 현 시대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한다. 아울러 법이 표출되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연구한 결과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인데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 주장한다.



최우익라성도·김봉철 교수, 대학 교재 및 인문 교양서 「북극의 이해」 출간

우리 대학 극지연구소와 러시아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북극의 이해」(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21년)를 출판했다. 북극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서이자 교재인 이 책은 북극의 정의로부터 시작해 원주민, 영토, 경제, 국제 거버넌스, 사회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북극 중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북극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무엇보다 북극을 처음 접하는 시민과 대학생이 북극은 무엇

이며, 그곳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그동안 북극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관심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북극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는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고민하면서 비롯됐다. 이 책은 북극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상환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 출간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가 「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박영사, 2021년)과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한국외대 지식출판원 HUINE, 2021년)를 출간해 눈길을 끈다. 이상환 교수는 지난 202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번에 출간한 「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은 학부생을 위한 국제정치경제 교과서로, 국제정치학의 세부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의 시각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또한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는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다룬 영문 연구서다.



CUFS News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다. 1차 모집은 7월 14일(수)까지, 2차 모집은 7월 30일(금)~8월 18일(수)까지다. 한국외대 학부 졸업자나 졸업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면 입학금 면제 및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제6회 사이버한국외대 해외문학번역상’ 성황리 종료
사이버한국외대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6개 언어권의 문학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번역하는 경시대회 ‘해외문학번역상’을 매년 개최한다. ‘제6회 사이버한국외대 해외문학번역상’ 대회가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막을 내리고, 지난 4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일본어 문학작품을 번역한 일본어학부 김명선 학우가 대상을 수상했고,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학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학과 및 학생회 주치의 전문가 초청 온라인 특강
사이버한국외대는 학교 및 학부(과)에서 온·오프라인 특강 및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유대감을 높여왔다. 최근에는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최근 영어학부는 ‘영어 스피킹 전략’ 특강, 한국어학부 학생회는 한국어교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총학생회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생관리 특강을 여는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색 있는 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어학부 이선영 교수,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 이선영 교수가 2021년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선영 교수는 전공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학문적 성과를 도출해 학술 진흥에 공적이 뚜렷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 진흥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5월 17일(월) 대학 총장실 부속회의실에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열어 이선영 교수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이버한국외대 K-Study센터, 2021-1학기 온라인 한국어과정 수료식

사이버한국외대 K-Study센터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어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화)부터 8주에 걸쳐 운영된 2021-1학기 한국어과정은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 수준별 초·중·고급 3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거주국, 인증, 문화, 직업 등이 각기 다른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 61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 1일(토) 해당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잘 마무리했다.

스페인어학부, ‘2021 돈키호테 연속읽기’ 행사 참여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가 세르반테스 문화원 아울라 세르반테스, 주한 스페인대사관과 함께 올해로 25회를 맞는 ‘2021 돈키호테 연속읽기’ 행사에 참여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의 김수진 학부장과 모니카 교수, 졸업생 대표 한보화 동문, 재학생 대표 김민주 학생과 아울라 세르반테스의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가르시아 실장, 안상미 학생 등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했다. 이날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대사도 낭독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020학년도 CUFS 우수강의상 및 2021년 장기근속자 포상 시상식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4월 19일(월) 대학 총장실 부속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CUFS 우수강의상 및 2021년 장기근속자 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매년 강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교원을 선발해 ‘CUFS 우수강의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중국어학부 이선희 교수와 스페인어학부 김성조 교수가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이날 일본어학부 사사 히로코 교수와 교학처 정보지원팀 김주희 팀장에 대한 10년 장기근속자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사이버한국외대, 국내 유수 기업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사이버한국외대는 최근 LG화학, 삼양홀딩스, 씨제이생물자원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협약기관 재직자가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하면 업무와 병행하며 언제 어디서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졸업 때까지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교육 협력 기회 확대 및 교류 증진을 위해 200여 개의 기업·기관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력을, 국내외 100여 개 대학·기관과 교육 협력을 체결하며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TESOL대학원, ‘2021 ALAK 연구방법론 워크숍’ 공동 개최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올해 8회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2021 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 워크숍은 한국응용언어학회(ALAK)가 주관하고,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 FOUR 교육연구단,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3월 ‘데이터 마이닝’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국내 저명 학자들이 응용언어학 연구에 꼭 필요한 주제로 강연을 선보인다.

외국어연수평가원

2021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1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2 ~ 12.17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7.05 ~ 07.30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9월	09.27 ~ 12.09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8.28 ~ 12.11 예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이다.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모든 과정은 평일과 주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여름 통번역기초 단기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통번역기초 단기과정'을 운영한다. 기존 15주 과정을 5주로 압축해 단기간에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수강생에게 적합한 강좌다. 다가오는 7월 17일(토)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영한 통번역 기초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25 ~ 03. 03	03. 28	04. 16	04. 30
2회	04. 29 ~ 05. 05	05. 30	06. 18	07. 02
3회	08. 05 ~ 08. 11	09. 05	09. 24	10. 08
4회	10. 21 ~ 10. 27	11. 21	12. 10	12. 24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FLEX센터는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과 연계해 15개 특수외국어전문어학능력평가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14일(토) 2020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했으며, 지난 5월 8일(토) 2021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했다(2021년 상반기 1회만 시행함). 해당 시험은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20. 3. 26)'을 근거로 개발한 특수외국어 어학 평가로서, 평가인증 체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응시자는 2021년도 국비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분야 지원시 해당 성적을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1학년도 전기(37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및 수료

TESOL전문교육원은 6월 21일(월)부터 7월 3일(토)까지 2주 동안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했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1학기 동안 TESOL연구과정을 수강한 34명의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7명의 원어민 교수님이 평가에 참여했고, 코로나19 시국 이후 처음으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 2주간의 영어세미나 평가를 마지막으로 학기의 막을 내렸다.

2021학년도 후기(38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오는 9월 1일(수)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1학년도 후기 과정생 일반 및 특별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일반전형은 2021년 5월 3일(월)부터 1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진행했고, 특별전형은 7월 5일(월)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7월 18일(일)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치르며, 지원자 중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만 2021년 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2021학년도 전기(37기) 교차 수강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지난 4월 모두 이들에 걸쳐 교차 수강을 진행했다. 교차 수강은 일반 TESOL 수강생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YL TESOL의 한 과목을 체험할 수 있게 배려한 제도다. YL TESOL의 Edward Povey 주임 교수가 스토리텔링 수업을 진행했고, 1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세 시간씩 총 여섯 시간 동안 Zoom을 통해 진행된 수업에서 수강생은 평소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다.

한국문화교육원

불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불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 및 통번역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5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1년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4월 23일(금)과 4월 30일(금) 이틀 동안 국민연금공단의 '2021년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Practical Guide to English Presentation, Public Speech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리더들이 영어 PT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평가와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리더의 성장과 글로벌 역량 강화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5월 10일(월)~7월 16일(금)까지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및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이해 콘텐츠로 구성된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현업 부서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2021년 한국전력공사 On-Board 과정 입학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6~8월 진행될 한국전력공사 On-Board 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스페인어 교육 중심인데, 특히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스페인 어학 콘텐츠를 소화하는 한편, 수업 중 진행되는 다양한 이문화 교육 세션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 비즈니스시 활용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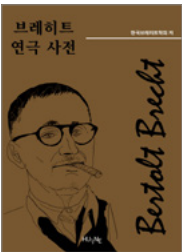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4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괴테사전2

「괴테사전2」는 모두 9장, 49항목으로 이뤄진다. 분량으로만 보면 1차보다 다소 축소됐는데, 이는 1차 「괴테사전」에 계획했으나 소개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많은 항목에서 최신 연구 동향이나 업데이트된 자료를 알려주고 있어 결코 1차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괴테 관련 새로운 분야나 항목을 수록한 것은 2차 사전이 「괴테사전2」로 간행된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한국괴테학회 / 405면 / 신국판 / 20,000원



브레히트 연극 사전

브레히트는 시대와 공간을 불문하고 세계는 모순으로 이뤄져 있고, 모순의 인식은 세계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문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에 다루지 못한 미완성 희곡 31편을 해설한 글이 실려 있고, 브레히트의 연극이나 연극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과 브레히트의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인물 등에 관한 주제어 118개에 대한 해설이 추가돼 있다.

한국브레히트학회 / 878면 / 크라운판 / 30,000원

민법총칙

민법총칙의 이론과 판례 및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엮어 강의에 적합하게 구성해 설명한다.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도 현재의 법률 상황을 쉬우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특히 법률의 해석이나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민법총칙을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박희호, 심우영 / 440면 / 신국판 / 21,000원

스와힐리어 표준 교재 A2

이 책은 전체 12과로 구성되는데, 각과는 대화문 두 세트, 강독 지문, 어휘 및 문법 설명, 연습 문제 등으로 이뤄진다. 대화문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 학교, 병원, 상점, 식당, 호텔,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표현을 담고 있다. 강독 지문은 학습자가 스와힐리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필됐는데, 주로 동아프리카 사회·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한다.

박정경 / 164면 / 46배판 / 20,000원

식자의 삶

인간의 삶과 행위 속에서 '음식'과 '먹기'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한 작은 논의다. 음식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과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과 복잡한 방식으로 결부된다. 음식과 관련된 원재료의 생산, 준비, 소비 과정은 음식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엮어매 육체의 건강과 병, 페미니즘, 성, 젠더, 정체성과 타자성, 심리학, 생태학, 정치경제학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관통한다.

서종석 / 237면 / 신국판 / 17,000원



태국어 표준 교재 A2

「태국어 표준 교재 A2」는 초급 단계의 태국어 구사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익숙하고 일반적인 문제와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단원별 대화문을 통해 상황별 태국어 사용을 익히고, 관련 어휘와 문법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구사의 제분야의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게 다양한 연습 문제를 수록했고, 단원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특수외국어 표준 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252면 / 46배판 / 23,000원

역사와 인물로 동유럽 들여다보기(개정판)

이 책은 동유럽의 역사와 인물별 테마 기획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동안 우리에게 단순하게만 알려진 동유럽의 여러 역사적 사건의 세계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유럽 인물의 삶과 숨겨진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동유럽 역사 전문가의 눈을 통해 동유럽 역사의 함축적 의미와 세계적 인물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유럽에 대한 역사를 좀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김철민 / 376면 / 46배판 / 20,000원

한 번에 합격하는 대비서-OPIc 베트남어 IM

전 세계에서 OPIc 베트남어는 베트남어 말하기 평가 시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기업의 계속되는 베트남 진출로 베트남어 교육 및 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임직원 및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습자에게 OPIc 베트남어는 베트남어 말하기 평가를 대표하는 시험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OPIc의 공통 주제와 Background survey(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선택형 주제, 역할극(롤플레이) 및 돌발 주제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교재다.

이현정, Đỗ Hồng Dương / 424면 / 46배판 / 31,000원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 같지만, 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37년 전 태국어를 처음 접한 저자는 그동안 태국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고 가르쳐왔으며, 그러는 동안 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겼다. 또 언제부터인가 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외에 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태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 이 책을 펴내게 됐다.

정환승 / 540면 / 신국판 / 19,000원

헝가리어 표준 교재 A1

「헝가리어 표준 교재 A1」은 유럽연합 공통 언어의 표준 등급 6단계 중 첫 단계인 A1 단계로, 향후 헝가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토대가 되는 교재다. 이 교재를 통해 헝가리어 실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의 헝가리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펴냈다.

유진일, Kovács Sándor / 288면 / 46배판 / 28,000원

H U

Alumni & Donation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Alumni News

HUFS Alumni

동문 출간

안경덕 동문,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82학번 안경덕 동문이 지난 5월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989년 학교를 졸업한 안경덕 장관은 그해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0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업무 스타일로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소통 가능한 최고의 노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국회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안 장관의 30년간의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 생활을 확인한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경의를 표했다. 안 장관은 고용노동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노동정책실장,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2021 서울 평화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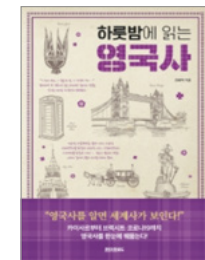
지난 5월 28일(금) 우리 대학 영어과 윤강로 동문(영어 76, 現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서울지역회의에서 주최하는 '2021 서울 평화컨퍼런스'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2032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자 선정 및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전망 관련 최근 국제 동향과 전망,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림픽 IOC 평가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 전문가인 윤 동문은 이날 올림픽 유치를 위한 로드맵 마련, 국제TF팀 운영 등 준비를 위한 전략과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영석 동문, 젊은 글로벌 창업자

우리 대학 Global MBA 15학번 이영석 동문이 졸업 후 '카렉트(CARRECT)' 창업으로 베트남 신규 시장을 개척한 후 스타트업 1년 만에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렉트는 출장방문 세차 비즈니스 모델로,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접근성과 최근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개화기를 맞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상황이 맞물려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올해 서른다섯 살의 젊은 창업자인 이영석 동문은 외대 MBA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실천해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전했다.



구관모(일본어 86)
도쿄스케치 호기심:
조근조근 일본 주재원 이야기
(좋은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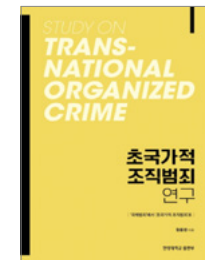
안병익(독일어 84)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페이퍼로드)



채다은(법전원 12(제4기))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지혜와지식)



채다은(법전원 12(제4기))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지혜와지식)



함중영(국제관계학(박) 14)
초국가적 조직범죄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Alumni News

HUFS Alumni

2021.03.01.~2021.05.31.

정부기관

안경덕	정치외교82	고용노동부 장관
권순지	네덜란드어93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김응복	디지털정보공학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서기관
이해숙	법학91	교육부 국제협력관 담당
양상근	법학89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기획과장
박준용	영어82	외교부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김진해	영어86	외교부 주 코스타리카 대사
정병하	독일어87	외교부 주 쿠웨이트 대사
임희순	영어83	외교부 주 샌다이 총영사
고은영	노어92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
박병은	행정9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김정훈	사학9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금융

신홍섭	스페인어82	KB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보성	국제통상99	신영증권 Credit Market부장
천상현	스페인어96	신영증권 재무관리팀 차장

기업

송영규	터키어81	싸이버로지텍 대표이사
유승빈	법학(석)13	한국애브비컴플라이언스 총괄 전무

언론

고세욱	폴란드어89	국민일보 부국장
박봉권	한영통번역(석)92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류동혁	행정94	스포츠조선 스포츠전략기획팀 부장
신승근	정치외교86	한겨레 정치에디터 부장
김형호	신문방송92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유상욱	영어91	JTBC 주말제작 담당
송현정	영어92	KBS 보도본부 정치부장
홍순영	스페인어90	KBS 라디오센터 라디오편성부장
박태서	영어86	KBS 시사제작국장

공공기관

김일윤	영어63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재수	응용전산(석)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정길화	스페인어7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이규진	스페인어84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조신	철학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이강민	경제89	대한상공회의소 회원CEO팀장
이상준	국제경영90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소통팀장
윤철민	국제통상89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장
임철	인도어87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장
안용혁	신문방송96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장
이승권	법학89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재부장
김경덕	법학99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총괄팀장
이기문	국제통상93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부 전략기획팀장
임창균	수학87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 선임비서역

학계

정윤철	중국어89	부산외국어대학교 교학처장
-----	-------	---------------

Donation News

HUFS Donation



반병렬 반씨대중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반병렬(영어 55) 반씨대중회장은 지난 5월 10일(월) 우리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반병렬 회장은 “모교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학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생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철 총장은 반 회장의 모교와 후배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우리 대학은 반병렬 회장의 뜻을 기려 인문과학관 403호 강의실을 헌정했다.



정현규 바이오플러스(주) 회장, 마스크 20만 장 기부

정현규(중국어 77) 바이오플러스(주) 회장은 지난 5월 12일(수) 우리 대학을 방문해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했다. 정현규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학생과 교내 관계자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소회를 밝혔다. 이에 김인철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정현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내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유용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스크 전달식에는 정현규 회장을 비롯해 승병욱 뷰티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인철 총장,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김종호 중국학대학장이 참석했다. 정현규 회장은 독보적 기술로 전 세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수출하는 바이오플러스(주)를 이끌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플러스(주)는 미용 재료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하이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바이오연구개발센터, 종합성형 병원 등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Donation News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김상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9	10,000,000
박관수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84	15,000,000
박재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2,722,575
안병갑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70	1,000,000
이호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0	10,000,000
최옥근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69	1,000,000
한세진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89	1,000,000
홍영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10,000,000
고영훈	외대교수	1,000,000
김광섭	외대교수	250,000
김봉철	외대교수	68,400,000
김유강	외대교수	250,000
김지은	외대교수	504,075
김지현	외대교수	250,000
나송주	외대교수	521,000
이창현	외대교수	2,000,000
최호성	외대교수	250,000
CHEMSCHOLARSHIP(화학과장학회)	동문단체	2,400,000
외교부 동문회	동문단체	3,000,000
외영78동기회	동문단체	3,000,000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동문단체	3,900,000
한국외대 여교수회(누리회)	교내단체	1,000,000
형길환	기타(개인)	18,000,000
(재)동원육영재단(동원그룹)	기타(기업)	150,000,000
(주)스타일노리터	기타(기업)	5,000,000
(주)썬에드	기타(기업)	2,700,000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기타(기업)	60,000,000
(주)이준시스템	기타(기업)	1,410,817
CJ대한통운	기타(기업)	3,360,500
국민은행 이문통지점	기타(기업)	5,000,000
낙원새마을금고	기타(기업)	3,360,500
메가스터디교육(주)	기타(기업)	199,501,810
비씨카드(주)	기타(기업)	1,001,927
에티미(주)	기타(기업)	10,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주식회사 당근마켓	기타(기업)	10,000,000
카다리영어	기타(기업)	1,700,000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기타(기업)	4,500,000
(재)삼성꿈장학재단	기타(단체)	15,6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3,020,500
KRX 국민행복재단	기타(단체)	1,500,000
공군사령부	기타(단체)	3,855,500
남동소방서	기타(단체)	1,050,3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10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6,721,000
도봉소방서	기타(단체)	1,251,730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기타(단체)	20,500,000
백미장학금	기타(단체)	2,000,000
사회복지법인 일일복지재단	기타(단체)	5,000,000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타(단체)	1,500,000
성남시장학회	기타(단체)	3,518,9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7,216,000
세아해암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31,778,000
안산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9,939,400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7,0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38,813,500
이스테파노 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일산장학회	기타(단체)	2,5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88,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 준재장학회	기타(단체)	50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기타(단체)	8,800,000
재단법인광주시민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철원소방서	기타(단체)	1,126,560
허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한원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형애장학회	기타(단체)	6,721,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6,000,000

간편한 약정을 원하시면 발전협력팀(02-2173-27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 학교발전기금 약정서

기 부 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자택			
		☐ 직장			
	인 적 사 항	근무처		부서/직위	
		연락처		E-mail	
구 분		동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기 부 지 정 분 야	학교 발전기금		☐ 학교에 용도를 위임합니다 ☐ 교육 ☐ 연구 ☐ 시설 (건축 및 기자재)		
	장학금		☐ 장학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학과, 연구소 발전기금 외		☐ 학교발전 : 대학 과(부) ☐ 기타 ()		
약정(기부) 총액		☐ 현금 원 ☐ 현물			
납부 기간 및 방법	일시납		☐ 1회 완납 (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납 자등이체		☐ 월납부액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 15일 ☐ 말일		
	분납 급여공제(교직원용)		☐ 월납부액 (원, 회) 사 번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_____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약정(기부) 방법 안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팩스	02-2173-2785 이메일 hufsfund@hufs.ac.kr
	우편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반드시 V(체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금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부 약정에 입력되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우,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지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입력을 위해 고위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7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물결치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AI시대를 밝히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HUFS 글로벌캠퍼스에서 키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는
AI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위해
SW 산업 현장 체험학습과 SW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글로벌 융합전문가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